

# 野戰砲兵의 殘存能力

(下)

金 明 哲 譯

## 綜合討議

殘存戰術討議를 綜合하기에 앞서 이런 戰術을 필요케 하는 유럽의 戰鬪環境條件을 再強調하는 것이 중요하다.

◇ NATO軍 砲兵部隊를 探知하는 바르샤바條約軍의 주요수단은 無電方向探知器이다.

◇ NATO軍 砲兵의 損失은 대부분 바르샤바條約軍의 對砲兵火力 때문이다.

◇ 戰車攻擊에 대하여 防禦를 試圖하는 砲兵部隊는 성공의 기회가 적다.

◇ 바르샤바條約軍 砲兵의 數的優勢는 NATO軍으로 하여금 全 砲兵部隊에 적어도 2/3 以上으로 하여금 항상 戰鬪態勢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 戰場에서의 砲兵部隊의 分散, 또 砲隊內에서의 砲의 分散은 殘存能力을 增進시켜 주는 必須的 要素이다.

◇ 砲陣地의 鞏固化 및 敵의 탐지와 攻擊을 피하기 위한 이동도 殘存能力을 증진시키는 要素이다.

射擊單位와 野戰砲兵小隊는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 射擊單位—射擊單位는 平均標的에 대하여 所期의 效果를 내게하는데 필요한 砲의 門數로 표시된다. 英國軍과 美國軍의 試驗에 따르면 최소한 4門의 155mm 曲射砲가 있어야만 平均 目標에 대하여 소기의 目標을 달성할 수가 있다.

◇ 野砲小隊—美國軍의 砲 8門으로 編成되는 砲隊의 半數砲로 구성되는 單位를 小隊라고

定義짓는다. 砲 8門으로 編成되는 砲隊에서 小隊는 400m 내지 1,600m 距離로 떨어져 獨立적으로 作戰할 수가 있다.

## 分 散

各國이 砲隊內에서의 砲에 分散配置를 강조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分散은 殘存能力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값싸고 손쉬운 方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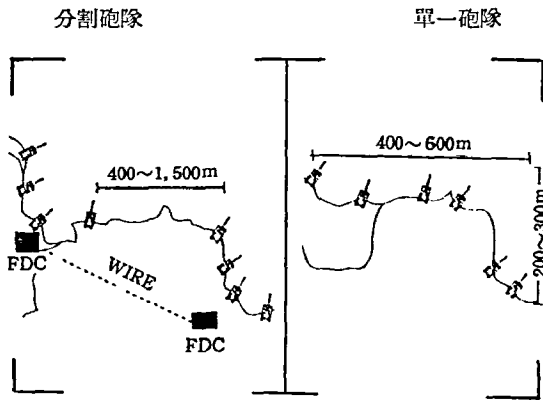
分散은 바르샤바條約軍의 對砲兵火力攻擊에 의하여 砲隊全體가 損失을 입는것을 防止할 것이며 또 最大限度로 敵으로 하여금 威脅敎理에서 요구하는 攻擊效果를 내기 위하여 多量의 在來式 彈을 消費하게 만들것이다.

分散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砲兵部隊가 廣域에 배치되어야 한다. 8門砲隊의 概念은 최소한 400m의 距離를 두고 2개의 4門小隊가 배치될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敵으로 하여금 標的 地域數를 2배로 늘리게 하여 줄것이다. 이 8門砲隊가 실현되면 分散된 小隊運營에 필요한 編制上의 人員과 裝備를 갖추게 될것이다.

그러나 測量에 필요한 裝備와 人員은 例外가 될것이다. 즉 射擊陣地의 數는 2배로 늘어도 測量裝備所要는 2배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8門砲隊編成이 아닌 다른 砲兵部隊에선 曲射砲를 적어도 100m 간격으로 縱深配置하여야 한다(그림 5 참조).

現在 美砲兵은 가로, 세로가 200m, 400m의 地域內에 砲를 並列로 배치하며 標準集束彈을 얻기 위하여 地形砲陣地修正을 계산한다. 100m



〈그림 5〉 美砲兵의 155mm 砲隊配置  
(8門砲隊 및 6門砲隊)

넘는 分散配置에서는 砲隊가 各砲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정을 計算하여 標準砲隊集束彈을 얻음으로써 標的效果表를 작성하게 된다.

6門砲隊에서 曲射砲를 100m 간격으로 分散配置 할때는 2門 내지 3門을 자기 砲隊中心을 가진 射擊單位로 취급하는 技術的 射擊指揮가 필요하다. 이 경우는 또 各射擊單位가 精確하게 測量된 中心地點을 가져야 함으로 測量所要가 많아진다. 그리고 射擊陣地占領時間, 특히 各砲와 射擊指揮所 사이에 有線通信網을 설치하는 時間도 길어질 것이다.

廣域分散에 수반하는 諸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方法과 裝備를 再評價할 필요가 있다. 여러개의 射擊組가 한 표적에 대하여 集中射擊을 加할때는 標準砲隊集束彈이 필요없게 될 것이다.

部隊作戰例規는 일정한 크기의 砲隊集束彈에 대하여 射擊速度가 우선권을 갖는 狀況條件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標準集束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野砲디지털 自動計算器(Field Artillery Digital Automatic Computer, FADAC)를 사용하여 砲隊區域內의 2門 내지 3門으로 구성되는 射擊單位에 대한 射擊諸元計算을 할수가 있을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戰術射擊指揮體系(TACFIRE)와 砲隊計算器體系(BCS)등의 自動計算器가 도입되면 射擊速度가 증가될 것이며 또 射擊速度의 增加方法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分散배치된 戰砲隊內의 通信은 신속히 設置할

수 있으며 신뢰성이 높은 裝備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小型送受信機(Small-Unit Transceiver, SUT)는 이런 所要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美砲兵이 各砲에 대하여 이 SUT 通信機를 受領할 때까지는 현재의 有線通信에 대체되는 通信方法이 필요해진다. 補給系統에서 구입가능한 輕被覆線은 현재의 多少 거치장스러운 有線網에 比하여 가벼우면서도 信賴性이 높은 代替通信網을 構成케 할 것이다.

8門砲隊로 구성되지 않은 砲兵部隊는 分散과 관련된 諸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編成의 增強이 있어야 할 것이다. 155mm 砲隊에 대한 輕重量 測量器具와 方位자이로(Survey Instrument, Azimuth Gyro, Lightweight, SIAGL)로 裝備된 測量班의 必要性은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陣地方位決定體系(Position Azimuth Determining System, PADS)의 導入은 장래의 砲隊가 迅速하고 精確하게 測量된 射擊位置를 選定하여야 한다는 要求條件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廣域으로 分散배치된 曲射砲는 또 다음과 같은 두가지 問題에 逢着한다. 즉 첫째 問題는 넓은 陣地面積은 步機甲部隊의 機動空間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要求하는데, 다시말해서 砲兵部隊와 步機甲部隊間에 해결하여야 할 部隊管理問題인 것이다.

둘째 問題는 分散된 砲隊는 地上攻擊에 대하여 넓은 防禦面積을 갖는다는 것이다. 觀測哨所에 대한 人員의 배치와 通信網의 설치, 그리고 健全한 防禦計劃案은 이 問題를 緩和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解決할 수는 없다.

### 陣地鞏固化

曲射砲를 掩蔽壕속에 넣으려는 砲隊는 엄청난 時間과 노력을 소비할 자오를 가져야 한다. 機械化砲兵部隊에서는 壕파기를 거의 전적으로 人力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것은 美軍編制上 砲兵部隊에 工兵裝備가 없고 師團工兵大隊의 裝備는 다른 用途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自走砲部隊는 機械化機動部隊를 계속지원하기 위하여 자주 移動하여야 한다. 따라서 土壤運搬車輛이 있으면 連轉兵은 자주 移動하는 砲의 移動時間前에 충분한 砲陣地를 마련하여야

만 한다는 作業壓迫을 받게될 것이다.

한편, 牽引砲兵은 時間과 勞力이 있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壕를 파야할 것이다. 牽引砲兵이 지원하는 部隊는 機械化部隊보다도 機動性이 약하기 때문에 그 部隊가 싸우는 戰鬥는 機動性을 덜 요하며 따라서 間接支援의 필요성은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部隊를 지원하는 砲兵은 한군데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며, 그러기 때문에 敵의 攻擊을 받기가 그만큼 쉬워진다.

師團工兵裝備는 牽引砲兵部隊에 보내어 壕과 기를 돕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면 牽引砲兵部隊는 自體의 힘으로 壕를 파서 人員과 裝備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英國과 캐나다의 砲兵은 訓練에서 1개大隊의 曲射砲 全部를 人力으로 관 壕속에 배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作業은 時間을 잡아먹었으며, 또 땅파기 作業으로 피로한 兵士들은 每陣地마다에서 壕를 파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英國砲兵이 고려중인 砲隊內的 各射擊組에게 壕속의 掩蔽陣地와 地形을 이용한 隱蔽陣地の 2개 陣地를 選定構築하는 방법은 掩蔽陣地에 投入 또는 거기에서 後退하는 이동을 신속히 한다면 砲의 殘存能力을 증가할 것이다.

모든 砲兵部隊는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좋다”는 말이 兵力과 裝備를 保護하는 어떤 方法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銘心하여야 한다.

部隊는 移動命令이 내릴때까지 防禦態勢를 繼續強化하여야 한다는 格言에 따라 砲兵部隊指揮官은 時間과 勞力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陣地를 鞏固化하는 作業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 敵의 威脅能力을 분석하여 防禦作業의 優先順位를 정해야만 한다. 최초로 占領한 陣地에서는 최소한도로 射擊指揮所와 砲를 壕속에 넣는 作業을 遂行하도록 하여야 한다.

美海兵隊 砲兵部隊는 편제상의 工兵裝備를 보유하며, 英國軍도 砲兵에 工兵裝備를 지급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美陸軍砲兵도 工兵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自走砲部隊의 땅파기 能力을 증가하는 방법으로 新型彈藥運搬車輛에 불도저의 삽날을 다는 것이 좋겠다.

이 삽날은 흙덩이를 만들어 砲身의 半을 그 속에 넣을수가 있어서 前面과 側面에 防禦壁을 만들어 준다. 이 方法은 砲를 완전히 保護할 수는 없어도 自走砲의 殘存能力을 크게 증진시켜서 發見만 되지않으면 바르샤바條約軍의 對砲兵射擊이나 空中攻擊을 이겨내게 할것이다.

## 移 動

自走砲部隊는 壕를 팔時間이 없으면 敵의 對砲兵射擊下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砲를 廣域으로 분산하든가 또는 자주 移動시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命題이다.

砲隊의 移動命令은 한 陣地에 머문 滯留時間, 한 陣地에서 수행한 射擊任務의 數와 종류, 또는 戰術的 要請에 의거 시달할 수 있을것이다.

移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留意할 事項은 被支援部隊의 火力支援要請을 감안하여 항상 支援 가능한 砲兵의 적어도 2/3는 항상 射擊態勢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砲兵은 이동하고 싶을때 움직여야지 敵의 對砲兵射擊을 받을때 움직여서는 안된다.

歷史적으로 볼때 砲兵의 이동은 砲隊別로 진행하여 3개 砲隊中 2개는 언제나 射擊陣地에서 任務를 수행할 態勢를 갖추고 있어야했다. 8門 砲隊로 編成된 大隊에서는 4門小隊 2개를 分離시켜 이동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移動中인 砲의 數가 적은 反面에 大隊一齊射擊에 참가하는 砲陣地數는 많아져서 敵의 對砲隊 레이다에게 混亂을 주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2개梯隊로 배치하면 大隊 全砲隊의 수만으로도 一齊射擊을 가할수 있는 能力을 갖게 하는데 이것은 현재 6門砲隊로 편성된 美砲兵에서 實施중에 있다.

2개梯隊配置는 또 敵의 空中攻擊을 받았을때 砲의 損失을 적게하여 줄것이다. 이런 作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裝備는 대부분 8門砲隊編制上에 포함될 것이다.

敵攻擊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종 移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砲隊는 “가볍게 싸울수”가 있어야 한다. 砲隊先發隊가 항상 새로운 陣地를 정찰하고 占領하는, 말하자면 쏘고는 달아나는 作戰이 殘存을 위한 이동의 特性이다. 이때 戰

鬪支援車輛은 기동성이 좋은 軌道車輛의 이동을 늦추게 될것이다.

따라서 이런 支援車輛과 支援人員은 砲隊勤務支援區域에 집결시켜 砲隊先任下士官의 指揮下에 두던가, 또는 大隊軍需將校의 통솔하에 있는 大隊勤務支援區域에 집결시키는 것이 편리하다. 이때 彈藥만은 軌道彈藥車에 積載하고 있어야만 한다.

만약에 특수한 狀況下에서 사용할 彈藥을 砲열의 地上에 쌓아 두었다면 移動時에는 이것을 後送하던가 혹은 爆破시켜 敵의 手中에 들어가게 하지말아야 한다.

殘存能力을 증가하기 위한 빈번한 移動에는 아래와 같은 短點도 있다.

- ◇ 砲가 掩蔽되었거나 隱蔽된 陣地에서 나오게 됨으로 敵機에 의해서 발견되어 攻擊받을 기회가 많아진다. 砲隊가 2개 梯隊로 移動하면 敵은 발견하기가 다소 어려워지며 또 敵의 攻擊을 받았어도 損失은 적어질 것이다.
- ◇ 測量業務가 많아질것이다. 近接支援砲隊에도 測量士가 필요하며 또 보다 효율적인 測量器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서두르는 測量作業으로 砲隊位置 選定에 다소의 誤差가 생길것이다.
- ◇ 移動이 많아짐에 따라 整備를 위한 遊休裝備數가 많아지며, 이런 裝備를 보충하기 위한 協調業務가 증가한다.
- ◇ 모든 戰鬪支援作戰은 보다 밀접한 협조를 必要하게 된다. 왜냐하면 無電機를 갖지 않으며 讀圖法의 訓練이 거의 없는 運轉兵들은 빨리 移動하는 戰砲隊를 찾아가기가 힘들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砲隊 또는 大隊에 後方勤務支援部署를 설치하여 이동이 頻繁하지 않는 이 後方部署를 戰砲隊로 向하는 모든 補給車輛의 案內所로 사용한다.
- ◇ 頻繁한 이동은 兵士들에게 休息時間을 적게 줌으로써 部隊의 持續的 作戰能力을 저하시킨다.
- ◇ 끝으로 砲隊를 兩分하여 빈번하게 이동하는 砲兵部隊는 移動空間에 대한 競爭이 심해진다. 旅團과 大隊의 火力支援調整將校와 砲

兵大隊作戰將校는 新設戰砲隊陣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짜고 流動的 戰場에서 일어나는 計劃의 변경가능성에 대해서 緊密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戰鬪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주 移動하여야 한다는 美砲兵의 敎理는 PADS, SIAGL, SUT, BCS 및 TACFIRE 등의 新型裝備를 개발케 한 한가지 理由이다. 이런 裝備는 또 廣域으로 분산되거나 掩蔽壕속에 들어있는 砲로 하여금 敵에게 對應射擊을 加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증가시켜 주기도 한다.

### 敵探知網으로 부터의 迴避

砲兵部隊는 壕속에 砲를 배치하여 敵의 攻擊에 對處하든가, 또는 자주 이동하여 敵의 攻擊을 피하려고 하든간에 敵의 探知網을 피하고 또 敵을 기만하여 陣地를 숨기려는 모든 노력을 傾注하여야 한다.

砲兵에게 있어서 無電機는 예수에 있어서의 유다같은 背反者 구실을 한다. 이것은 자주 強調되는 사실로 兵士들은 常時警戒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바르샤바條約軍에게 있어서 無線方向探知는 NATO軍 砲兵部隊의 위치를 探索하는 最善의 方法이란 것을 알아둘 必要가 있다.

部隊의 隱蔽努力을 水泡로 돌아가게 할수 있는 廢物의 일부는 兵士들에게 發見될 수 있고, 혹은 騷音訓練을 망치게 하는 不必要한 소리를 내면 이것도 兵士들에게 들릴수가 있다.

그러나 2개 또는 그 이상의 敵 無線方向探知所에게로 가는 無電機안테나에서 나오는 音響의 集中的 사이클은 누구도 볼수 없고 또 들을수도 없다. 陣地의 位置를 알아내는 三角法의 計算이 進行되고 있음을 알길이 없고 따라서 5톤의 로켓트砲彈이 陣地위에 곧 떨어진다라는 것도 알수 없다.

바르샤바條約軍이 우리의 指揮統率能力을 크게 損傷시킬 수 있는 대규모 無線電子戰을 감행할 것이라는 사실은 널리 잘 알려졌음에도 우리는 이런 無線電子戰에 대한 對策이 거의 없다. 이것은 우리 砲兵部隊의 잘못이 아니고 현재 사용중인 無線裝備의 缺陷때문인 것이다.

앞으로 統合戰術通信體系(Integrated Tactical

Communications System, INTACS)가 導入되면 砲隊級 以下에서도 신뢰성이 높고, 保安성이 높으며 敵의 電波妨害와 無線方向探知에 걸리지 않는 通信이 가능해질 것이다.

遠隔操縱無電機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操作不能의 遠隔無電機는 操縱場所에서 대체 불가능하다. 그리고 無線周波數의 變경은 無電所에서만 가능하다. 자주 이동하는 部隊는 陣地마다 遠隔操縱無電機를 설치할 時間이 없다.

따라서 이런 部隊에서 필요한 것은 無電所에서 1,000m까지의 距離에 안테나를 設置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현재의 技術로 가능함에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設置하기가 쉬우면서도 덜 복잡한 指向性 안테나는 敵의 無線方向探知器를 無力케하는 決定的 長點을 갖고 있다.

有線으로 먼 距離에 指向性 안테나를 設置하는 것은 現在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陣地에 이동했을 때 方向을 다시 잡아 設置하는데 時間이 오래 걸린다는 短點이 있다.

砲兵部隊는 敵의 無線方向探知와 電波妨害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현재의 通信保安節次를 꼭 지켜야 한다. 그런데 指揮官이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 限 通信保安節次는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獨逸砲兵과 프랑스砲兵이 강조하는 速射는 美國砲兵이 연구하여야 할 敵의 對砲兵 레이다 探知를 피하기 위한 한가지 技術이다. 15秒란 짧은 射擊時間內에 射擊하고 이동하는 戰砲隊에 대하여 敵의 對砲兵 레이다가 方向을 맞출 수가 없다면 美國砲兵은 敵의 이런 弱點을 이용하는 技術과 裝備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地上攻擊에 대한 防禦

野戰砲兵部隊와 步兵機動部隊 사이에는 防禦計劃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基本的 差異가 있다. 즉 步兵部隊는 防禦陣地를 構築함에 있어서 그의 基本任務인 敵의 공격을 擊退하기 위한 陣地를 만든다.

한편, 砲兵部隊는 砲隊陣地를 방어함에 있어서 基本任務인 間接火力支援을 수행하면서 防禦에 臨하여야 한다. 砲兵의 戰鬪支援勤務人員은 戰砲隊에서 裝備와 共用火器를 위한 掩蔽壕를

파는데 보통 動員될 수 없으므로 砲兵의 防禦陣地構築은 시간과 人力의 제한을 받는다.

또 砲兵陣地는 間接火力支援任務를 수행할 수 있고 部隊의 自體防禦를 고려해서 選定된다. 그러나 砲兵指揮官은 필요에 따라 火力支援任務를 自體防禦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陣地를 정한다.

바르샤바條約軍의 機械化步兵部隊 또는 戰車部隊의 공격을 받으면 NATO軍의 砲隊는 武器에 있어서 아주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射距離, 彈의 殺傷力 및 機動性에 있어서 曲射砲는 아주 유리한 狀況에 있을 때를 제외하곤 戰車와 심지어는 소聯의 BMP 裝甲車의 敵이 되질 못한다.

美國砲隊의 유일한 편제상 對戰車武器는 M72 A1 輕對戰車로켓트(LAW)이다. M72A1 LAW의 最大有効射距離 200m는 拳銃을 제외한 바르샤바條約軍 機械化步兵의 모든 武器가 갖는 有効射距離보다도 짧다.

砲兵의 編制에 Dragon 對戰車武器를 추가할 가능성에 대한 研究結果, 현재의 砲隊編制상에 있는 人員과 裝備로선 이 武器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運搬할 수도 없음이 밝혀졌다.

또 自走砲에서 射擊할 수 있는 徹甲彈의 개발은 費用效果面에서 바람직하지 못할뿐더러 砲兵 彈藥의 種類가 많아짐에 따라 基本携帶彈種類에 새로운 彈種을 追加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問題는 아주 명백해진다. 즉 砲兵部隊는 가능한 限 敵機械化部隊의 공격을 피해야 한다. 觀測哨, 侵透探知體系 및 情報系統은 사전에 敵攻擊에 대한 警告를 주어 砲兵部隊로 하여금 敵攻擊前에 안전한 陣地로 後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砲兵部隊의 敵地上軍 기습공격에 대한 防禦計劃엔 敵을 기만하고 敵攻擊을 지연시키는 射擊이 포함되어 砲가 威脅地域에서 벗어나 안전한 豫備陣地에서 임무를 繼續遂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砲隊防禦計劃은 또 敵遊擊隊, 特戰隊, 空輸部隊의 공격에 대한 조치도 포함시켜 이런 攻擊을 擊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砲

의 분산이 砲隊地域防禦에 미치는 影響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敵의 對砲隊射擊을 피하기 위해 분산한 部隊는 危險負擔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危險負擔이 가장 적은 地域을 택하여 敵에게 최대의 威脅을 주는 地域에 火力을 집중하여야 한다. 砲隊의 再編成을 위한 諸補給品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防禦計劃의 고려사항이다.

### 要 約

위에서 討議한 砲兵의 殘存戰術과 技術의 검토에서 몇가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유럽에서 예상되는 戰鬪環境에서 채택되는 野戰砲兵의 어떤 殘存戰術과 技術도 항시 研究와 評價를 거듭하여 新敎理를 수립하는데 參考로 하여야 한다.

戰鬪에서 살아남는데 최선의 技術이란 없다. 한나라의 野戰砲兵의 殘存能力을 위한 技術은 그나라 砲兵의 任務, 編成 및 裝備에 알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 技術은 임무와 兵力構造가 다른 砲兵에게 有用하지 않을 수도 있다.

現在의 裝備開發에 대해서는 이들 裝備가 殘存能力에 미치는 影響에 관하여 위에서 論議하였다. 이 論議에서는 한결같이 새로운 裝備보다 많은 裝備, 그리고 보다 많은 人員에 대한 必要性이 지적되었다.

新裝備와 보다 많은 人員에 대한 요구는 妥當하며, 따라서 이런 裝備와 人員으로 殘存問題를 해결할 수 있으나, 현재 實用可能한 技術에 力點을 두고 위의 討論은 전개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技術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現在 實用可能한 技術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 通信保安節次에 대한 指揮官의 強調.
- ◇ 敵의 對砲兵射擊效果를 감소시키기 위한 分散.
- ◇ 敵의 對砲兵射擊을 피하기 위한 移動.
- ◇ 火力支援을 위해 陣地에 남아있어야 할 砲隊陣地의 鞏固化 및 처음으로 戰鬪陣地에 投入되는 모든 砲隊陣地의 鞏固化.
- ◇ 바르샤바條約軍 機械化部隊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하고 혹은 敵遊擊隊와 空輸部隊의

공격에 충분히 對抗할 態勢를 갖추게 할 時間을 주목하는 敵地上軍攻擊의 早期警報. 野戰砲兵은 아래와 같은 裝備를 갖추므로써 殘存에 필요한 條件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 M109A1 8門砲隊와 6門砲隊에 編制上 測量裝備와 測量人員이 요구된다. NATO軍砲兵은 아직 PADS(Position Azimuth Determining System, 陣地方位決定體系)를 갖추는 段階에 있지 않다.

◇ 現在 供給中에 있는 불도저를 各戰砲隊, 특히 索引戰砲隊에 編制上 裝備로서 한臺式 공급한다.

◇ 小型送受信機(Small Unit Transceiver)는 砲兵의 殘存能力에 重要하다. 早速히 調達하도록 하여야 한다.

◇ 遠隔안테나 능력은 敵의 無線方向探知器에 의한 陣地探知能力을 크게 低下시킬 것이다. 그런데 遠隔안테나 능력을 키우려는 開發努力이나 調達努力이 進行중에 있지 않다.

◇ 方向調整設置가 쉬우면 指向性 안테나의 사용은 증가할 것이다. 指向性 안테나는 敵의 無線方向探知器의 능력을 85% 내지 그 이상으로 低下시킬 것이다.

위에 列擧한 要求條件은 신기한 것이 아니며 또 현재의 技術水準을 넘는 것도 아니다. 또 比較的 값싼 것들이다. 砲兵部隊에게 殘存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한 技術을 익히게 하는 同時에 이런 技術을 100% 有效하게 만들 裝備를 開發供給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글의 序頭에서 말했듯이 여기에서 다룬 範圍는 全部가 아니다.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殘存技術도 勿論 있다. FA Journal誌의 最近號에는 FM 90-2(戰術의 기반)와 같은 野戰砲兵 殘存能力敎範을 發刊할 필요성을 力說한 論文이 실려있었다. 아마도 이런 必要性이 認定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討議된 여러가지 技術과 戰術은 砲兵의 殘存能力에 대한 敎範 發刊에 징검다리를 놓게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Field Artillery Survivability” Field Artillery, Mary-June, 1980)

